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미 통상 관계 전망'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신규실업 청구건수 소폭 증가...지속적 신청은 급증
- WSJ: WSJ 설문 전문가들 “당초보다 미 인플레이 상승...GDP 상승 예상”
- FinanceYahoo: 루비니 교수 “휴머노이드 로봇이 블루칼라 노동력 확보한다”

[미국 금융]

- CNBC: 미 크레딧 카드 이용자는 최소 이자만 낸다
- Bloomberg: 모건 스탠리 CEO “인수 합병 활동 회복된다”

[트럼프 행정부]

- WSJ: 플로리다 불법 이민 추방 후 발생한 일들

[에너지]

- Bloomberg: 석유 시장은 트럼프 움직임 주목, 유가는 79불 근처
- CNBC: “트럼프의 반대에도 재생 에너지 발전은 멈추지 않아”

[인공지능]

- CNNBusiness: “이제 CEO는 인공지능도 관리하게 될 것”
- WSJ: 오라클이 AI 산업에서 경쟁하는 방법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OpenAI, 마이크로소프트와 멀어진다
- WSJ: 월마트 일부 매니저 임금 60만불 이상 인상
- Bloomberg: 아메리칸 항공, 경쟁사에 비해 깜짝 손실 발생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Jobless Claims Rise Slightly But Recurring Applications Surge

미 신규실업 청구건수 소폭 증가...지속적 신청은 급증

-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이 3년여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신규 청구건수는 소폭 상승했다.
- 1월 11일 끝나는 주에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는 190만건으로 지난 2021년 1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국은 발표했다. 이는 더 많은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6천건 늘어난 22만3천건을 기록했다. 신규 청구건수는 팬데믹 이전 숫자에 거의 근접하는 숫자로 노동시장이 안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US Continuing Claims Rise to Three-Year High Initial applications remain subdu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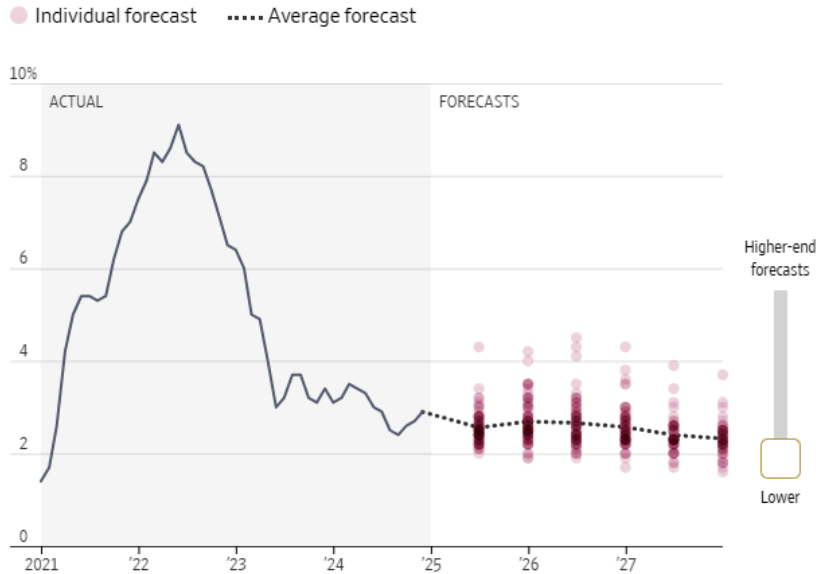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Where Economists Think the Trump Economy Is Headed WSJ 설문 전문가들 “당초보다 미 인플레 상승...GDP 상승 예상”

- 이번 달 초에 WSJ의 전문가들 대상 설문에서 이들은 향후 수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10월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예상이다.
- 이들은 소비자물가지수가 향후 12개월간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설문조사 결과는 2.3% 상승이었다. 아주 적은 전문가들만이 10월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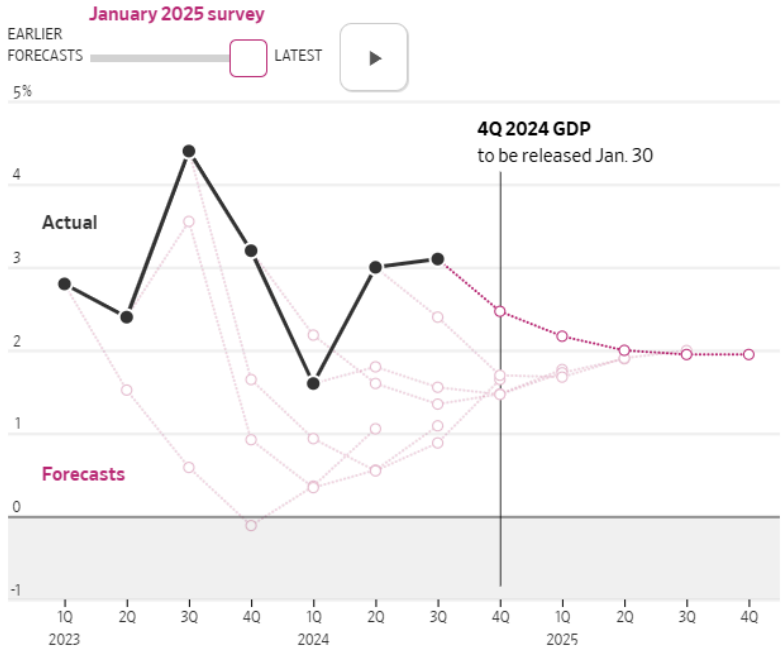
Consumer-price index, 12-month change



Note: For forecasts, darker shades indicate overlapping dots.
Sources: Commerce Department (actual); Wall Street Journal survey of economists (forecasts)

- 반면, 전문가들은 작년 4분기 미 GDP 증가율이 지난 10월 예상치인 1.7%보다 높은 2.5%로 추정했다.

GDP growth, with economists' forecasts over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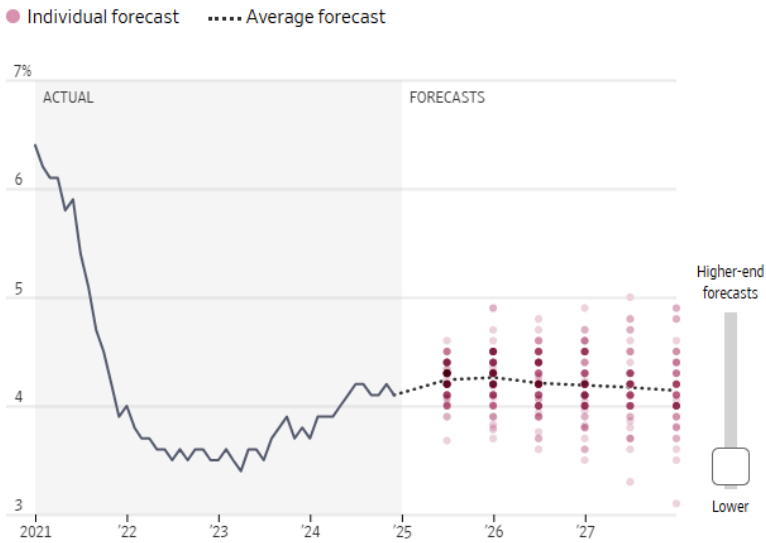


Note: Chart shows annualized change in real GDP from a quarter earlier, seasonally adjusted, and average forecasts among survey respondents.

Sources: Commerce Department (actual); Wall Street Journal survey of economists (forecasts)

-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말 실업률이 4.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예상치와 변동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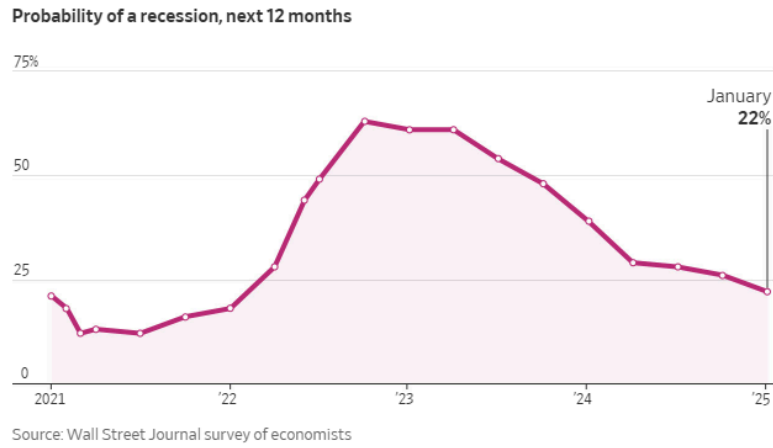
Unemployment rate, with economists' forecasts



Note: Actual unemployment rate is seasonally adjusted. For forecasts, darker shades indicate overlapping dots.

Sources: Labor Department (actual); Wall Street Journal survey of economists (forecasts)

- 전문가들은 향후 12개월간 경기 침체 가능성을 22%로 점쳤다. 이 확률은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WSJ 기사

FinanceYahoo: Humanoid robots may upend economy, warns Nouriel "Dr. Doom" Roubini 루비니 교수 “휴머노이드 로봇이 블루칼라 노동력 확 바꾼다”

- 닥터 둠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여파에 대해 경고했다.
-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 중인 그는 YahooFinance와의 인터뷰에서 “노동 현장, 건축 현장, 심지어 식당 근로자와 가정주부를 대체할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현하고 있다. 이는 커다란 변화이며, 향후 1년이나 2년 안에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마디로 휴머노이드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 그는 AI가 건축, 공장, 각종 서비스의 일을 학습해 근로자들을 대체하게 되며, 특히 블루칼라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Citi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향후 2050년까지 7조달러에 달하게 되며, 가정 청소, 세탁 등 일상적인 일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FinanceYahoo 기사

[미국 금융]

CNBC: A record number of consumers are making minimum credit cards payments as delinquencies also rise 미 크레딧 카드 이용자는 최소 이자만 낸다

- 미국 크레딧 카드 이용자 중에서 지난 3분기에 최소한의 이자만 지불하는 이들이 10.7%로 늘어났다. 관련 데이터가 집계된 지난 2012년 이래 최대치다.
- 30일 이상 연체되는 잔액 비중은 3.21%에서 3.52%로 상승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 물론 이 같은 높은 연체율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6.8%나 되었던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보단 밑돌고 있어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CNBC 기사

Bloomberg: Morgan Stanley CEO Pick Sees Comeback in M&A Activity on Horizon **모건 스탠리 CEO “인수 합병 활동 회복된다”**

- 모건 스탠리의 CEO인 Ted Pick은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 중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수 합병에 대한 큰 수요, 특히 사모펀드 회사 간에 관련 협상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가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인수 합병 시장에서 뒤쳐졌었지만 향후에는 앞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그는 지난 수개월 동안 관련 업계가 다년간의 투자 은행 사이클의 정점에 있다고 말했으며, 모건스탠리의 인수 합병 파이프라인은 지난 수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난주에 말했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행정부]

WSJ: What Happened After Florida Cracked Down on Illegal Immigration **플로리다 불법 이민 추방 후 발생한 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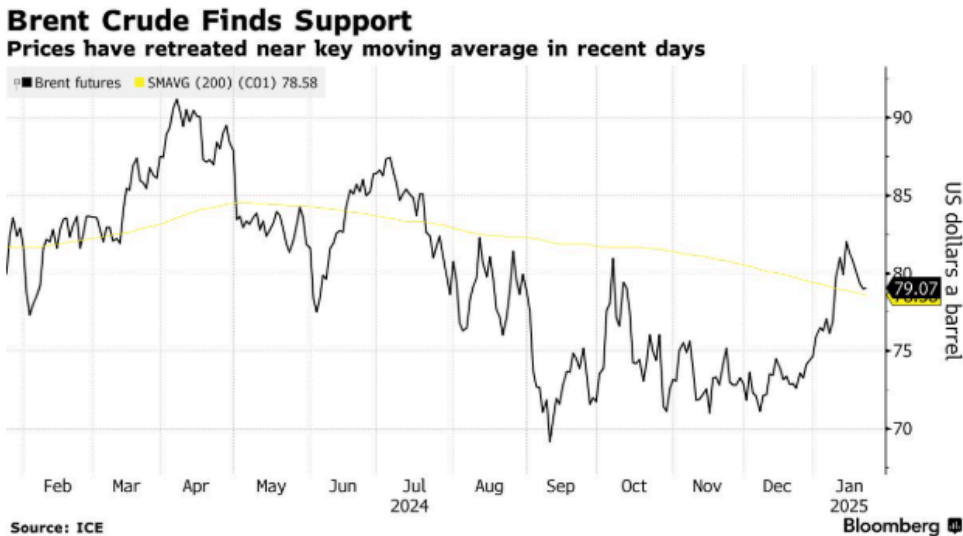
- 플로리다가 2023년 관련 법에 따라 불법 이민자들 단속함에 따라 관련 근로자들이 플로리다를 떠나면서 일부 소기업 업계가 일자리를 채우기 힘들어졌다.
- 해당 플로리다 법에 따라 25인 이상의 회사들은 고용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연방 전자 인증 이민 시스템 (federal E-Verify system) 사용이 의무이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하루에 1천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 한편 이 같은 플로리다의 일손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른 주에 비해서 일자리 감소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WSJ 기사

[에너지]

Bloomberg: Oil Holds Near \$79 With Focus on Rising Stockpiles, Trump Moves **석유 시장은 트럼프 움직임 주목, 유가는 79불 근처**

- 유가가 배럴당 79달러 근처를 유지하고 있다. 석유 시장은 트럼프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는 미 석유 비축량을 100만 배럴 늘렸고, 계속 비축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장은 트럼프의 글로벌 무역 공약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러시아 원유 제재로 올해 초 유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 UBS Group AG 상품 분석가 Giovanni Staunovo는 “시장은 관세와 제재에 대한 트럼프의 조치가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특히 미 석유 비축량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데이터가 명확해질 때까지 시장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CNBC: Renewable giants shrug off Trump’s anti-wind policies: ‘Electrification is absolutely unstoppable’
“트럼프의 반대에도 재생 에너지 발전은 멈추지 않아”

- 트럼프가 재생 에너지 사업 지원을 멈추고 전통적인 화석 연료로 돌아가는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재생 에너지 대기업들은 에너지 전환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 재생 에너지 대기업 Siemens Energy의 감독 이사회 의장 Joe Kaeser은 “전기화의 시대가 막 시작됐다. 가스터빈이든 풍력이든 태양열이든 다른 무엇이든,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고객이 결정한다. 백악관이 아니라 고객이 우리에게 돈을 지불한다.”라고 말했다.
- 스페인의 재생 에너지 대기업 Ibedrola도 “화석 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전기화를 위한 최고의 순간에 와 있다. 전기로 구동되는 데이터 센터, 저공해 차량, 냉난방 앱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CNBC 기사

[인공지능]

CNNBusiness: Today's CEOs are the last to manage all-human workforces, says Marc Benioff**“이제 CEO는 인공지능도 관리하게 될 것”**

- 오늘 목요일, Salesforce의 CEO Mark Benioff는 기업이 인공지능을 점점 더 많이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CEO들은 인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Benioff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한다. AI와 인간이 함께 더 높은 수준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I 전문 기업 Anthropic의 CEO Dario Amodei는 2026년에서 2027년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보다 더 나은 AI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달 초, 세계경제포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고용주 41%가 2030년까지 AI가 특정 업무를 자동화함에 따라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미래 보고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77%는 2025~2030년 사이에 직원을 재교육해 AI 숙련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CNNBusiness 기사

WSJ: How Oracle Plays Cheaply in AI**오라클이 AI 산업에서 경쟁하는 방법**

- 오라클, 소프트뱅크, OpenAI의 협력으로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오라클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이자 초기 기술 파트너로 선정됐다.
- 스타게이트 보도 이후 오라클 주가는 지난 이틀 동안 14% 상승했다. 하지만 아직 1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빅테크 기업들에 비하면 경쟁력이 부족하다. 오라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에 비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
- 분석가들은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Bernstein의 Mark Moerdler는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부동산을 대부분 임대하며, 공간과 성능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인다. 고객의 소비에 맞춰 필요에 따라 확장과 축소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덕분에 다른 빅테크 기업보다 컴퓨팅 장비에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Value Hunt

Share price as a multiple of projected earnings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OpenAI's Stargate Deal Heralds Shift Away From Microsoft OpenAI, 마이크로소프트와 멀어진다

- Open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Open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협력해 새로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4년간 5천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증가하는 컴퓨팅 파워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지 협상해 왔다. Open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팅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면서도 다른 공급자를 찾지 못하게 하여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 하지만 OpenAI의 CEO 샘 알트만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좋은 협력 관계라는 내용의 SNS를 게시했다. 그는 “매우 중요하고 큰 파트너십, 앞으로로도 오랫동안. 단지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WSJ: Some Walmart Managers Get a Raise, Lifting Their Max Pay Above \$600,000 월마트 일부 매니저 임금 60만불 이상 인상

- 월마트가 올해 지역 매장 매니저들의 임금을 인상했다. 상위 성과자들은 60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매니저들의 주식 보상은 연간 7만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증가하고, 연간 보너스는 기본급의 90%에서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
- 동시에 월마트는 사무직 직원들의 재택근무 종료, 급여 삭감, 매장 직원과 동일한 건강 보험 적용 등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월마트가 노동 비용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 많은 기업들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관리자 직책을 축소했지만, 월마트는 오히려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회사는 몇 년 동안 관리자 직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WSJ 기사

Bloomberg: American Air Sees Surprise Loss in Break From Bullish Rivals

아메리칸 항공, 경쟁사에 비해 깜짝 손실 발생

- 유나이티드 항공사 등 향후 밝은 전망을 발표했던 경쟁사들과 달리 아메리칸 항공은 비즈니스 여행객을 다시 끌어들이고 고비용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 올해 초부터 큰 손실이 예상되자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했다. 아메리칸 항공은 매출은 비교적 좋지만, 연료 외에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 이 항공사는 올해 1분기에 주당 40센트 정도의 조정된 손실을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같은 기간에 평균 1센트의 수익을 기대했었다.
- 이 같은 어두운 전망 발표는 유럽으로의 겨울 여행 수요 강세와 높은 국내선 항공권 가격 상승, 비즈니스 여행을 증가로 밝은 전망을 예상했던 유나이티드 항공사와 델타 항공사와 대조를 보인 발표였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뉴욕증시, '트럼프 AI투자' 기대에 강세...S&P500 장중 최고가 엔비디아·MS 4%↑...'손정의 투자' 칩 설계업체 Arm은 16% 폭등 '가입자 3억명' 넷플릭스 9.7%↑...랙리 빅테크에 한정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사흘째인 2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투자 기대에 낙관론이 지속되며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

대형주로 구성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한 달여 만에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7.13포인트(0.61%) 오른 6,086.37에 거래를 마쳤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